

* 벤처 가까이에서 벤처와 함께하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성공을 준비하는 기술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맞춤형 정보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창업의 벽이 높다고 느끼는 예비창업자가 있다면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팀장 성승호)'의 도움을 받아보자. 기술창업자들의 성공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역량 있는 팀원들로 구성된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을 소개한다.

정리_ 편집부 · 자료제공_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의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전담조직으로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및 판로개척 등 창업의 전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술창업지원팀은 창업진흥원의 사업화 지원 조직으로 '예비기술사업자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총 지원예산은 755억 원으로 2,000여 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비기술사업자 육성사업은 첨단기술에서부터 반짝이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품화제작, 마케팅, 창업컨설팅, 법인설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상업화육성사업은 시장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시작품 제작비용 지원 및 시장반응을 조사해보고, 제품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상품화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와 내년도 지원 방향이 궁금합니다.

금년 신규로 추진된 창업지원사업은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960명이 창업하여 2,3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올해 매출액도 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욱이 내년도는 예산이 증액되고, 창업자별 지원 규모도 창업과제에 따라 차등 상향조정하여 실제 창업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올해보다 간소화하여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지원받은 창업자 중 성장가능성이 큰 창업자를 선발하여 단계별 지속 성장지원을 위한 연계 지원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올해 창업 지원을 받지 못한 많은 창업자가 내년도 사업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공고시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은 상품화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나 특허를 보유한 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마케팅전략 수립 등 상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미만인 자입니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10년도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과 실험실 창업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될 예정임)은 창업지원 인프라(인력, 장비, 시설 등)가 구축된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성공가능성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상품화 제작,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미만인 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09년 12월 말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창업진흥원(www.iked.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가 될 예정이니 성공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비기술창업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도출을 통한 창업환경을 마련할 것이며, 지속적인 쌍방향 통로를 열어 두어 창업 이미지 제고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